

Journal of Go Studies

Volume 20, No. 1

2026

바둑학연구

2026

국제바둑학회

발행처: 국제바둑학회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내 학회사무국
전 화: 031-330-6255
발행인: 남치형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인쇄일: 2026년 5월 31일
발행일: 2026년 5월 31일
인 쇠: 인쇄와 디자인 (02-957-7744)
편 잡: 도서출판 안복스 (02-923-5930)

Editor-In-Chief: Dr. Bae Incheol (Korea, Fiscal Reform Institute)

Board of Editors

Prof. Kim Jaeup (Korea, UNIST, Dep. of Physics)
Prof. You Xiaochuan (China, Beijing University)
Dr. Daniela Trinkts (Germany, Max-Planck-Institute for the History of Science)

『바둑학연구』는 국제바둑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2회 발행하며, 바둑 분야의 개관논문, 경험논문, 사례 분석 연구를 게재한다. 본 학회지는 학회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비회원에게는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한다.

Contents

Introduction / Bae Incheol

<Research Articles>

Special Feature: Ten Years of AlphaGo - Go in the Age of AI

- Quant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Traditional Joseki and AI-Recommended Moves / **Kim Jaeyun** 11
- Rewriting God's Move: Narrative Revisionism and the Memory Hole in Lee Sedol's *Memoir* / **Bae Incheol** 51

Go and Psychology

- Exploring Structural Correspondences Between Go Playing Style and Szondi Drive-Profile Scores / **Arthur Mary** 79
- Association between Go Experience and Sustained Attention in Young Adults / **Daniela Trinks, Maria Teresa Martinez Garcia** 129

The Social Landscape of Go

- Popular Openings amongst Amateur Online Go Players: Insights from Data-informed Analysis / **Quentin Rendu, Carlos G Urzúa-Traslaviña, Stephen Hu** **159**
- Casual Go Player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Europe and East Asia: Numbers and Characteristics / **Marc Oliver Rieger** **183**

Book Review

- *AI and Consciousness* (Han Jeong-gyu. CommunicationBooks, Inc., 2025) / **Park Woosuk** **197**

서평

한정규, 『인공지능과 의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

박우석

가지 않은 길과 무덤으로 가는 길

범한서적과 종로서적을 잇는 직선이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한창 젊은 시절, 나의 고정 산책로였다. 교보와 영풍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라 외국어 원서를 구경하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중간 지점의 범문사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쪽으로 가면 이공계 서적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책방과 비록 좁지만 썩 괜찮은 원서 전문 헌책방도 들릴 수 있었다. 흑한의 칼바람을 맞으며 비장한 마음으로 걸던 산책로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사지도 읽지도 못할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앞에서 서성대다 호되게 구박을 받았기 때문인지, 계산대 위에 키 높이로 구입할 책들을 쌓아놓던 은사 박동환 교수님을 질시하지 않으려는 결단 때문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략도 무기도 없이 우연 배후의 신탁에 의지하여 나서던 사냥에서 오스틴이 영역한 프레제의 『산수의 기초』 독일 대역본을 전리품으로 챙긴 것은 나로서는 잊지 못할 무용담이다.

종이책을 살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젊은이의 마음을 흠치기 위해서는 끈대의 체취를 가능한 한 숨기며 짧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편이 현명했겠다 싶다. 이제라도 그렇게 하자. 장시간에 걸친 인터넷 서핑 끝에 싹박한 책을 성공적으로 사서 읽고 행복했다. 이 책은 마치 저자가 나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한 듯하다. 혼자 읽기 아까워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다시 끈대 모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자와의 만남은 언제나 운명의 장난인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알파고 충격이 충격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둔감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중에 알파폴드로 노벨상까지 받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경이 뇌과학자라는 사실도 뼈아프다.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의 학계나 도서출판 시장을 돌아보면 뇌과학은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각광받은 인기 종목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뇌과학 분야 석학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그들 중 상당수가 사이비 뇌과학자였기 때문이라는 진단은 과연 지나치게 폭력적인 것일까?

일면식도 없는 이 책의 저자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것은 100 퍼센트 우연은 아니겠지만 그에 가까운 행운이었다. 문외한이 전문가를 어찌 감별할 수 있겠느냐만, 이 분이 진짜 뇌과학자라는 느낌은 단번에 왔다. 평소에 사이비 뇌과학자라고 의심하며 혐오했던 인물에 대해 이 분이 단호하게 취하는 준엄한 태도 때문이었다. 진짜 과학자라면 사이비 과학자에 대해 의당 그런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 분이 해외 우수 학술지에 게재하신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페이스북에 올리시

는 글들을 통해 감질나지만 기본 개념들을 배우고 또 최신 학계 동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곤 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분이 일반 대중을 위한 교양서를 내셨다. 이렇게 반갑고 고마울 데가 없다. 모처럼 왕년에 밤새워 무협소설 독파하던 실력으로 독서삼매경에 푹 빠졌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어쩌면 커뮤니케이션북스의 인공지능 총서가 지금까지 낸 632권의 인공지능 관련 저서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책일지도 모른다. 이 시리즈는 “인공지능 문고”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 출간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책들까지 포함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 총서의 집필 원칙에 따라 친절하고 상세한 머리말에 이어 저자가 추린 열 개의 핵심 단어를 주제어 삼아 열 장의 내용이 펼쳐지고, 그 단어들을 선정한 이유와 책의 전체 구조는 머리말에서 명쾌하게 설명되고 있다. 1장은 의식 문제의 중요성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2-3장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뤄진 의식 개념을 분석한다. 4-5장은 철학적 관점에서 의식의 본질과 정의를 재고한다. 6-7장에서는 의식과학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요 의식 이론을 정리한다. 8-9장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의식 가능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에필로그인 10장은 현재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의식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을 소개한다.

문제를 도입하는 머리말과 제1장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동기, 구상, 그리고 목표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즐겨 『AI 로봇공학의 철학적 뿌리』(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25)에서 이미 논의한 바보다 더 낮게 서술할 자신이 없으므로 재탕하는 데 대해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

<한정규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의식 연구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본다(한정규, 2025, p. vii). 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 이유 또는 근거를 그는 이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신경 신호의 집합체에 불과한 존재인지, 아니면 보다 깊은 본질을 지닌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앞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의식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 발전에 따른 도전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self)를 이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같은 곳).

그 결과 그는 의식 연구와 인공지능 연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함께 수행”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예상한다(같은 곳). 그리고 이런 사고의 흐름 기저에는 의식 연구와 인공지능 연구를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의식을 물리적 현상으로 전제하고,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접근 방식”이라는 그의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같은 곳). 한정규는 신경과학자이자 실험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같은 책, p. x), 인지신경과학 연구가 활발해져 “의식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정작 의식이란 무엇인지 밝히려는 치열한 철학적 논쟁이 점차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쉬워한다. (같은 책, pp. x~xi) 이러한 내면의 긴장 또는 갈등을 그는 “신경과학 연구자의 좌충우돌”로 묘사하기도 하고, 의식 연구를 “오래된 (그러나) 깨고 싶은 금기”로 특정하기도 한다(같은 책, p. 2, 5) [박우석 (2025), pp. 68-69].

저자 자신의 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반성 외에도 머리말에서 독자가 건질 바는 상당히 많다. 예컨대 저자는 머리말에서 “박쥐가 된다는 것” 이해하기”와 “박쥐가 된다는 것” 이해하기 2”라는 소제목을 단 두 개의 독립된 절에서 오늘날 의식 과학이 정립되기까지의 전사를 간략하면서도 요령 있게 서술했

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What is it like to be a bat?)”는 저명한 미국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Thomas Nagel)의 1974년 논문 제목이고, 그 논문에서 네이글은 의식이 ‘무엇 같은 느낌(what it is like)’이라는 주관적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초음파를 이용한 반향정위(echolocation)로 세상을 인식하는 박쥐의 주관적 경험을 인간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한 단적인 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글 이후 학자들 중에는 설사 박쥐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무엇 같은 느낌”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본 이들이 있었다. 미국 철학자 알바 노에(Alva Noë)와 영국 심리학자 케빈 오레건(Kevin O’Regan)이 감각-운동 이론(Sensory-motor Theory)을 주창하며 “의식을 환경과의 능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려 한” 것이 한 사례다. 또 미국 신경생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가 “의식이 신체적 감각과 감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식을 원초적 자아(Proto-self), 핵심 의식(Core consciousness), 그리고 확장된 의식(Extended consciousness)의 세 가지 층위로 구별한 것이 또 다른 예이다. 의식을 단순히 뇌의 내부 기제로 취급하지 않고 신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려는 이 이론들은 “의식에 대한 전통적인 표상주의적 접근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체화인지(embodied cognition) 패러다임과 연결된다”고 한다. (pp. xiv-xv)

1장에서 저자는 의식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이 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는지를 반성하는 일견 대단히 위태로운 전략을 취하고 있다. 얼핏 의식 연구를 알게 모르게 기피하는 현상이 자칫 사이비 과학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신경과학자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여길지도 모르지만, 이런 조심스러움은 심리철학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의식 연구가 금기시된 원인을 추적한 결과 그 자신도 설득되어 의식 연구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든 물론 아니지만 심리철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별다른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나부터도 의식의 문제에는 감히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저자의 결단에는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실제로 저자는 “의식 과학 연구를 더 이상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대단히 강한 결론으로 1장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결론의 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왜 의식은 그토록 오랫동안 금기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골상학(phrenology)’과 ‘내성법(introspection)’에 대한 깊은 의심이다”. (p. 3) 첫째 논점과 관련하여 저자는 인공 신경망 개발이 제대로 평가받기까지 인공지능 연구가 인공의 세월을 감내하면서 “‘의식’이라는 개념이 ‘C-word’로 불리며,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인공 신경망 개발 과정에서 인간의 고차원적 인지를 구현하려 했기 때문에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다”는 이야기 같다. 20세기 중엽 이래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저자의 시각에서 이해한 바를 피력하는 것인 까닭에 서술이 불가피하게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매우 중요한 단서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아마도 그 단서들로부터 유의미한 탐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기가 적시되고 거론한 사실들과 더불어 저자가 염두에 둔 인물들이 특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뤄진 의식 개념을 분석하는 2장과 3장

“대중매체에 등장한 의식 문제”라는 제목을 단 2장과 “대중화된 의식 과학 연구”라는 제목을 단 3장은 의식이 왜 철학과 과학에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대중들을 보물섬으로 유혹하는 신비스럽고 오묘한 지도다. 저자가 의식을 주제로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할 행운을 누렸을지 여부는 확인할

깊이 없지만, 영화 감상에서 출발해서 깊이 있는 문제로 나아가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내용을 볼 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얻은 수강생들 면전에서 열강하는 저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2장은 TV 시리즈 <웨스트월드(Westworld)>와 두 편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2001: A Space Odyssey)>와 <그녀(Her)>에서 다뤄진 의식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독자를 의식이라는 주제에 빠져들게 만든다. 다행스럽게도 이 세 작품을 모두 즐겁게 관람했었기 때문에 저자의 해설을 통해 이해를 심화하는 기쁨이 쏠쏠하다. 유능한 평론가라면 당연히 <웨스트월드>가 마이클 크라이튼(Michael Crichton)의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그 스스로 만든 동명의 영화가 흥행에도 성공했으며, 2016년 방영된 TV 시리즈는 그 작품의 리메이크라는 정보를 어김없이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작 <웨스트월드>는 단순한 리메이크를 넘어, 줄리언 제인스(Julian Jaynes)의 저서 『양원적 마음의 해체와 의식의 기원(The Origin of Consciousness in the Breakdown of the Bicameral Mind)』(1976)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는 해설은 상당히 뛰어난 평론가에게서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다. 더구나 역사와 고전 문헌학 연구를 통해 “인간 의식을 진화의 필연적 산물이 아니라 문화적·언어적 발달의 결과”로 본 줄리언 제인스의 양원적 마음 이론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의식, 사고, 인지 작용에 대한 탐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정보는 아마도 평론가가 의식과학자가 아닌 한 제공이 불가능할 것이다. 고대인들은 자각이나 내면 독백을 하지 못했고 문자 발명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뇌의 두 반구를 연결해 의식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제인스의 양원적 마음 이론의 아이디어도 흥미롭지만, 이 개념이 “로저 스페리(Roger Sperry)와 그의 제자 마이클 가자니가(Michael Gazzaniga)가 1967년 발표한 분리뇌(Split-brain) 실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웨스트월드>에서 호스트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자의식을 갖게 된다”는 설정이 양원적 마음 이론을 활용한 것이라는 해설

에 이르러서는 저자를 TV 교양 프로그램 고정 출연자로 적극 천거하고 싶어진다. (pp. 13-14)

3장을 구성하는 세 절은 각각 “뇌 읽기”, “뇌 쓰기”, “뇌 바꿔치기”라는 흥미진진한 제목을 달고 있다. “뇌 읽기”는 초능력이 미래의 범죄를 사전에 예측해서 범죄자 체포를 돕는다는 “2002년 개봉한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의 SF 스릴러 영화 <마이노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의 설정”을 거론하는 데서 시작해서 “뇌 활동을 해석해서 인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개념은 기능적 자기공명(fMRI)이나 뇌전도(EEG, Electroencephalography) 같은 뇌 영상 기술이 등장하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관찰로 이어진다. (pp. 22-23) 한편 “뇌 쓰기”는 “2010년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의 SF 액션 스릴러 영화 <인셉션(Inception)>의 주요 줄거리”에 기대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추출’이라는 기술로 타인의 꿈에 침투해서 생각을 훔치는 전문가인데, 추출이 아니라 ‘인셉션’, 즉 아이디어를 심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된다. 저자는 “타인의 생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꿈속에서 정보를 훔치는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이 이 영화가 보여준 “참신한 발상”이라 여긴다. 실제 의식 연구가 “꿈, 수면 각성 등 다양한 의식 상태를 탐구”하므로, 이 영화의 설정과 전제된 개념이 “인간의 의식의 경계와 공유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저자의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pp. 24-25). 마지막으로 “뇌 바꿔치기”는 중국 민간 설화에서 실제 사례들에 이르기까지 장기 이식과 관련된 이야기로 운을 떼 다음 “뇌를 마음의 장기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후, 역사적으로 극히 드물지만 뇌 이식이 시도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개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머리를 몸통에 이식하는 실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인간 뇌 이식 수술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7년에는 카데바(시신)를 이용한 뇌 이식 수술 리허설을 진행했다”고 한다(pp. 26-27).

철학적 관점에서 의식의 본질과 정의를 재고하는 4장과 5장

4장과 5장은 저자가 마지못해 억지로 쓴 부분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생각은 이 부분을 별로 꼼꼼히 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떠올랐을 수도 있다. 의식의 사전적 정의에 문제가 많고, 의식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철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해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p. 35에서 저자는 ”이처럼 다양한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보면, 의식이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생각·감정·의지를 통해 주변을 이해하며 반응하는 정신적 작용이라 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저자의 지적대로 이런 정의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자는 “의식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 나아가 정의가 반드시 필요할까?”라고 자문하기도 했는데, 그러는 저자에게 독자들은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불가사의한 점은 대동소이한 정의가 p. 23, p. 27, p. 36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의식이 복잡하고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은 저자의 사고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혹시 저자가 의식의 이론적 정의를 추구하는 지난한 여정에 오르기 전에 이미 뭔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장에 철학사 전체 또는 현대 심리철학 전체를 적절하게 요약하는 일을 저자에게서 기대할 독자는 단 한 명도 없기 쉽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 일은 당연히 철학사나 심리철학 책들에게 맡기면 된다.

하룻밤 자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꿈속에서도 계속 툭툭대며 의식을 정의하는 문제와 심리철학의 근본 문제들과 씨름했나 보다. 저자가 이 부분을 쓰기 싫어 원고지 매수만 억지로 채우는 모습을 상상한 것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분통이 터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은 저자 자신이 의식의 정의로 제시된 것들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더 나은 정의를 모색하면서 겪어 온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

려는 의도가 이 부분의 서술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 심리철학에서 필수 종목이라고 할 기능주의, 환원주의, 다중 실현 가능성(Multiple realizability), 감각질(qualia), 존 설(John Searle)의 중국어방 논변 등이 주마간산적으로 소개된 것도 몇 줄로 그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겹겹이 쌓인 난제들과 씨름하다 좌절하고, 포기했다가는 다시 어느 틈에 그것들의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저자의 일상이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중계되기를 바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식의 문제는 고사하고, 심리철학의 상투적 문제들에 관해서도 A4 용지 열 장 남짓의 소위 연구논문을 써서 SCI급 학술지에 게재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그러나 학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논문 편수를 어떻게든 채워야 한다. 어쩌면 의식 문제와 심리철학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논문을 써볼 생각을 단념했던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용서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단히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수년 간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앤드루 와일즈(Andrew Wiles) 흉내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저자처럼 의식의 문제와 심리철학의 문제들과 정면으로 대결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만, 이 책의 독자들은 현실을 직시하되 불굴의 자세로 한 걸음씩 전진하기를 바란다.

의식과학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요 의식 이론을 정리하는 6장과 7장

이 책의 핵심은 6장과 7장일지 모른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이 책을 펼쳐 읽게 되기 때문이다. 머리말에서 저자가 스스로 이 책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도 (p. xviii) 독자들의 “확장된 독서와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도 (p. xvii) 모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라

야 앞뒤가 맞는다.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관심이 이만큼 일치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저자가 안내하는 대로 확장된 독서를 열심히 하면 과연 연구라고 할 만한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나는 기꺼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델 생물의 역할을 맡고 싶고, 언젠가는 부족하더라도 그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싶다.

저자는 “과학 문제로서의 의식”이라는 제목의 6장에서 현재 의식 과학 연구에서 취해지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데이터 기반 접근법과 이론 기반 접근법을 소개한다. 그러나 저자는 실험심리학과 신경과학이 취하는 전자가 현재 의식 연구의 주류라고 보고, 의식을 물리적 대상으로 보고 물리 법칙 내에서 탐구하는 후자는 소개하는데 그치고 논의의 거의 전부를 전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접근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것들 양자 모두 저자가 이해하듯 “의식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잠시 보류한 채” 데이비드 차머스(David Chalmers)가 ‘쉬운 문제’라고 부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그 소위 쉬운 문제들을 차머스를 인용하여 나열한 다음 그것들을 설명하는 데 6장의 논의 거의 전부를 할애한 반면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물론 저자는 1장에서 이미 차머스의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구별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어려운 문제’는 의식의 본질과 같은 철학적 문제로,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난제를 의미한다. 반면, ‘쉬운 문제’는 인지신경과학에서 다루는 뇌 연구와 행동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과학적 문제를 가리킨다”. (p. 6) 곧 이어 저자는 차머스가 그의 유명한 1995년 논문 “의식 문제와 마주하기(Facing up to the problem of consciousness)”에서 우리가 의식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까지 했다. “깨고 싶은 금기”라는 제목의 절 안에서 “새로운 프레임이 학문의 판도를 바꾼 사례로 차머스의 기념비적 논문을 거론했으므로 문맥상 차머스는 의식의 쉬운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까지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가?

어쨌거나 저자는 6장에서 우선 차머스가 ‘쉬운 문제’라고 부른 것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환경적 자극을 구별하고 범주화하며 반응하는 능력, 2. 인지 시스템에 의한 정보 통합, 3. 정신 상태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 4. 시스템이 자신의 내적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5. 주의 집중, 6. 신중한 속고를 통한 행동 조절 메커니즘, 7. 깨어 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의 차이. 그리고 이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 많이 쓰이는 연구 기법들을 친절하게 소개해준다. 예를 들어, 1과 관련하여 자극-반응 능력의 관점에서의 연구 방법이 “19세기 구스타프 페히너가 확립한 정신물리학적 실험 방법론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후 신호 탐지 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으로 발전”했다거나 2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 중에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기능적 연결성 분석”, “뇌전도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 그리고 “멀티모달 통합 실험” 등이 있다는 설명을 통해 독자는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들이 퍼즐 맞추듯 연결되는 데서 배우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한편 3과 관련하여 “의식적 지각의 동적 특성을 연구하는 강력한 도구”로 소개된 “양안 경쟁(binocular rivalry) 패러다임”처럼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이야기도 있다. 각각의 눈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면, “두 이미지가 동시에 망막에 투사됨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는 한 번에 하나의 이미지만 지각된다”니 참 신기하다. 당연히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서도 독자는 다양한 연구기법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 개인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문제는 6장과 7장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는 데 있다. 소위 쉬운 문제들은 당연히 모든 의식과학자들이 해결하기 위해 부심하는 공통의 과제들이다. 이 문제들 각각에 대해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연구기법들도 아마도 의식과학자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것들이기 쉽다. 그렇다면 7장에서 소개한 의식과학의 네 가지 주요 이론들은 쉬운

문제들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어려운 문제에만 관련되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어느 한 의식과학자는 자신이 추종하는 의식과학의 이론에 따라 의식과학의 쉬운 문제를 연구하는 데서도 특정 연구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든가 특정 연구기법은 금기시한다든가 하는 차이를 보이는가? 소개된 일곱 가지 쉬운 문제들은 또한 서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추종하는 의식 이론의 차이에 따라 문제들에 접근함에 있어서 순서가 달라진다거나 문제의 중요성을 전혀 달리 파악한다든가 하는 차이를 보이는가? 일곱 문제 중 어느 하나에 관해서는 현재 경쟁 중인 의식 이론들 중 어느 한 이론이 다수설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다른 하나에 관해서는 또 다른 어느 이론이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개관을 제공할 수는 없는가?

7장 “의식 과학에 대한 주요 이론”에서 저자는 광역 작업 공간 이론, 통합 정보 이론, 예측 이론, 그리고 재귀 처리 이론의 네 가지를 지목하고 각각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내용을 전달한다. 이 지점에서 독자는 저자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의식의 어려운 문제까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차머스의 주장이고 저자가 이에 공감한다면, 7장에서 의 논의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대표적 이론들을 소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저자는 그 점에 관해서 속 시원히 갈래를 잡아주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누락일 소지가 있고, 저자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스타니스라스 드엔(Stanislas Dehaene) 등에 의해 확장되어 대표되는 광역 작업 공간 이론(Global (Neuronal, 신경 중심) Workspace Theory)에 따르면, “작업 공간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처리되지만, 특정 정보만이 광역 작업 공간으로 올라와 의식적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p. 64) “의사 결정과 같은 합리적 사고를 위해 뇌에 저장된 정보 중 일부만이 사용 가능하다는

개념을 기반으로”하는 이 이론은 “의식과 인지 처리 가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이며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실험적으로 지지된다고 한다 (p. 65).

통합 정보 이론(Integrated Information Theory: IIT)는 정신과 의사이자 수면 신경과학자인 줄리오 토노니(G Tononi)가 스승 제럴드 에델만(G. M. Edelman)과 함께 발전시켜 온 의식에 대한 수학적 이론이다. 의식이 “뇌의 특정 영역이나 기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경 네트워크가 서로 통합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p. 66). 데이터 기반의 실험 증거에서 출발하는 기존의 이론과 달리 순수한 이론적 작업을 추구하는 이 이론의 특징은 “의식을 주관적 경험으로 정의하며, 경험의 필수 속성에서 다섯 공리(axiom)를 도출한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같은 곳).

예측 이론(Predictive Processing)은 뇌가 “끊임없이 감각 입력을 예측하고, 실제 감각 정보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현대 인지과학 이론이고, 저자는 뇌가 상향식(bottom-up) 및 하향식(top-down) 처리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생각이 이 이론의 핵심이라고 본다. 제이콥 호위(Jakob Hohwy), 앤디 클라크(Andy Clark) 등 철학자들과 아닐 세스(Anil Seth), 칼 프리스틴(Karl Friston)을 비롯한 다수의 신경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지만, 저자는 이 이론이 “의식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기 보다는 “의식 연구를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파악한다 (p. 68-69).

마지막으로, “재귀적(recursive) 신호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재귀 처리 이론은 “시각적 의식의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 중 하나”다. “시스템 내 요소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활용되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가 핵심 개념인 이 이론은 “특정 자극이 의식적으로 지각되는 과정”이 “단순한 무의식적 정보 처리 과정”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

자는 이 이론이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패턴과 순환적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그 응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데 주목하지만, 그것이 “모든 형태의 의식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 (pp. 69-70). 유독 이 이론에 대해서는 대표적 이론가를 소개하지 않아 아쉽다.

애당초 기대했던 바 이상으로 저자는 의식 문제에서 주요 이론들을 명쾌하게 소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어쩌면 저자는 이 이론들에 관해 더 자세하게 논의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예컨대, 저자는 통합 정보 이론(IIT)이 의식을 주관적 경험으로 정의하며, 경험의 필수 속성에서 내재성(Intrinsic experience), 구성성(Composition), 정보성(Information), 통합성(Integration), 배타성(Exclusion)이라는 다섯 공리를 도출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나서 이것들 하나 하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4장과 5장을 한 데 묶고 그 대신 네 가지 의식 이론들 사이의 경합 양상을 신바람 나게 증계하는 데 하나의 독립된 장을 할애할 수는 없었을까? 이쯤에서 불현듯 저자가 머리말 말미에서 1990년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주요 의식 과학 학회들이 설립된 시기이고,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 제2의 연구 분야로서 의식 과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 상기된다. 저자는 특히 “1972년 항체 구조 발견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면역학자 제럴드 에델만(Gerald Edelman)”을 거론하면서 그의 신경 다윈주의(Neural Darwinism)나 그가 저술한 다수의 의식 과학 연구서들이 아니라 줄리오 토노니, 칼 프리스틴, 아닐 세스 등 오늘날 의식 과학 연구를 주도하는 인물들을 길러냈다는 것을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손꼽았었다 (pp. 6-7). 이 점이 상기된 까닭은 당연히 저자가 통합 정보 이론의 개척자로 토노니와 에델만을 지목한 반면, 프리스틴과 세스는 예측 이론 진영의 수뇌부에 포함시켰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합 정보 이론과 예측 이론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왜 갈라졌을까?”, “설사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식 이론들과의 싸움에서는 공동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증이 증폭된다. 실제로 다수의 공동연구자들이 참여한 최근 네이처 논문은 현재 의식 이론 분야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광역 작업 공간 이론가들과 통합 정보 이론가들이 어떻게 비판을 통해 서로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Cogitate Consortium et al., 2025).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의식 가능성을 고찰하는 8장과 9장

제목만 보고서 이 부분은 현재 의식 과학자의 “실전 맛보기”라고 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이 예상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선 “비인간 모델과 의식”이라는 제목을 단 8장은 뇌 연구의 발전에 따라 동물의 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저자 역시 동물 심리철학 연구에 투신할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케 해준다.

저자는 우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뇌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인간의 순서로 진화하며, 뇌간(brainstem), 중뇌(midbrain), 전뇌(forebrain)가 차례대로 형성되고 층층이 쌓이는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믿음이 현대 진화생물학에 의해 산산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동물의 뇌는 “단계적 축적이 아니라, 세 영역을 모두 갖춘 공통 조상에서 분기된 결과”로 설명되고, “어류 역시 뇌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중뇌와 전뇌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간의 경우 단지 전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졌을 뿐”이라고 한다 (p. 74). 저자는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성찰이 인간 중심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서 저자는 2012년 7월 7일 의식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철학자들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한 “인간이 의식을 생성하는 신경학적 기질을 지닌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과 2024년 4월 19일 뉴욕 대학에서 의식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철학자들이 발표한 “다른 포유류와

조류에게 의식적 경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요지의 선언문의 원문과 우리말 번역문을 전재하고 있다 (pp. 76-79).

나 자신이 동물의 가추적(abductive) 인지에 관해 몇 편의 논문을 쓴 적이 있는 까닭에, 2024년 뉴욕 선언문의 제1 저자가 동물 심리철학 분야의 선도적 연구자 중 한 사람인 크리스틴 앤드류스(Kristin Andrews)라는 사실이 너무나 반갑고, 저자가 참고문헌에 철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Synthese*와 *Philosophical Studies*에 게재된 논문들을 포함시킨 것을 보며 머지않아 저자의 철학 논문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리라는 확신에 가슴 설레게 된다.

“특이한 의식”이라는 제목의 9장은 존재론 분야에서 다시 저자와 조우하게 되리라는 예감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기쁨을 준다. “공유된 의식”이라는 제목을 단 소절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의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하나의 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주목하고, 그런 관행에 대해 삼쌍둥이 사례가 심각한 도전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p. 84). 실상 삼쌍둥이 사례는 개체화 문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뿐만 아니라 생명의료윤리학 강의를 하면서도 마주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얻어 풀어나갈지 난감한 주제인데, 저자의 공유된 의식에 관한 신경과학자로서의 관점과 이해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2006년 캐나다에서 두개골이 연결된 삼쌍둥이로 태어(난)” 타티아나와 호간의 사례는 “시상이 연결되어 있어 감각과 생각의 일부를 공유한다”고 하며, 저자가 지적하듯, 이는 기존 의식 이론과 달리 “개별적이면서도 연결된 의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사례로 보인다 (pp. 84-85). 그 반면, “1990년 미국에서 태어난 삼쌍둥이로, 하나의 몸통을 공유하지만 각각 독립된 머리와 뇌를 가지고 있(던)” 아비게일과 헨젤의 사례는 (“의식이 신체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신체를 공유하면서도 두 개의 독립적 의

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p. 85). 계속해서 저자는 “1911년 태국 시암에서 태어났(고)” “삼쌍둥이”란 용어가 그들로부터 유래된 창과 앵 병커의 사례를 소개한다. 흉골 부위가 연결된 채 태어났지만, 그들은 각각 독립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협력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이주한 후 각각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며, 일정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가족과 지내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조정”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p. 86). 저자가 지적하듯, 이 사례는 자아(self)의 독립성과 행위주체성(agency)의 범위에 관해 중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뇌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그 다음 소절에서 좀 더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문제를 소개한다. 2007년 의학 저널 《란셋(Lancet)》이 보고한 “대뇌 피질 영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한 44세 남성의 사례와 2014년 의학 저널 《브레인(Brain)》이 보고한 소뇌가 없는 24세 여성의 사례는 너무도 놀랍다. 후자의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소뇌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약간의 보행 불안정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고 하니 문외한으로서는 이 사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안이 벱벱할 따름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사례들에서 인간 뇌의 “놀라운 가소성”에 주목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들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의식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을 소개하는 10장

마지막으로 10장은 책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반추하고 남은 문제들에 대한 전망하는 결론이자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이 대단히 부실하고, 저자는 (아직은) 한 인공지능 연구자로서 현재 인공지능 연구자들 대부분이 의식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을 대변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까닭에 이 장

의 전반부는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조금 더 겸손하게 외부자 내지 관찰자의 관점에서 주류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의식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보이는지 포착해서 보고했어야 하리라고 본다. 최소한 인공지능 연구와 의식 연구를 동시에 함께 하고자 하는 저자의 야심 내지 목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장의 백미는 후반부에 제시한 SF 소설 구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품평하는 즐거움은 독자들에게 남겨두어야 마땅할 것이다.

사족

저자가 참고문헌으로 소개한 논저들은 모두 다 의식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소중한 자료들이고, 그것들로부터 출발해서 저자가 권면하는 확장된 독서에 몰입하는 즐거움은 위에서 이미 충분히 예증했다고 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 이미 번역된 책들의 경우 서지사항을 알려주는 친절함이 저자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저자에게 그 많은 책들을 다 구입해서 검토해야 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번역서들의 질적 수준에 대해 저자는 상당히 회의적이라 짐작되고, 아마도 그런 이유로 알면서도 침묵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독서를 열망하는 독자들이라 해도 그 많은 자료들을 원서로 독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그럴 결심을 한 열혈 독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번역서의 존재는 알려주는 편이 나았으리라고 본다.

앞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이 책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회한을 일깨우는 동시에 무덤으로 가는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 나가게 해준다. 저자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사족에 사족을 하나 더 덧붙인다. 광역 작업 공간 이론가들과 통합 정보 이론가들 사이에 과학적 논쟁뿐 아니라 철학적 논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자는 “의식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정작 의식이란 무엇인지 밝히려는 치열한 철학적 논쟁이 점차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쉬워한다 (p. xi). 저자의 이런 소회를 앞에 두고 두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 가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세계적으로 의식 연구의 현황을 조감할 때, 저자의 느낌은 대체로 정확하리라 본다. 그러나, 그렇다면, 저자는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20세기말 의식 문제에 관해 최소한 단행본 저서를 냈던 심리철학자들의 사상을 좀 더 진지하게 다뤄야 마땅하지 않을까? [Carruthers, P. (2005); Dennett, D. C. (1992); Lycan, W. G. (1987)] 물론 저자가 암암리에 가정하듯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이루어진 철학자들의 의식 논의가 차머스의 비판에 의해 일거에 무색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머스 이후 심리철학자들이 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최소한 차머스에 의해서라도 의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차머스의 경우 지속적으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만 보더라도) 논의의 상당 부분에서 의식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저자가 그의 최근 사상에 관해 거론하지 않은 것은 자못 서운하다. 최근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은 명백히 의식 과학자가 쓴 것인데 놀랍게도 의식 철학이나 심리철학에 국한하지 않고 과학철학자 마이클 프리드만(Michael Friedman)의 칸트 해석을 통합 정보 이론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보이고 있었다 [Chis-Ciure (2025); 프리드만 (2012)].

그리고 이런 생각의 흐름은 다시 저자가 머리말에서 고백한 바로 되돌아간다: ”필자는 의식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을 수 없어 사비를 들여 의식 과학 학회에 참석해 왔다. 공적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다. 2014년부터 참여한 학회에서는 주요 이론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펼쳐졌으며, 한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는 대가일지라도 의식 문제를 다루는 데는 서툴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목격하며 배웠다. 약 10년이 흐른 뒤, 학회의 성격은 더욱 과학적인 방식으로 의식을 연구

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인지신경과학 연구가 활발해진 영향인지도 모른다“ (p. x-xi). 짧지만 이 고백 내지 보고는 대단히 함축적으로 국내에서의 의식 연구의 산 역사를 보여준다. 사이비 뇌과학자들이 출판시장을 교란하고 대중을 흑세무민하는 사이 진짜 의식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는 말이다. 차머스의 1995년 논문이 실렸었고, 그 후 의식 과학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체가 되어 온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를 카이스트 도서관이 구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극히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너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서 내가 검색에 서툴러 찾지 못했으리라 믿고 있는데, 가부간에 저자의 고백의 진실성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감 없이 충분히 전달된다. 폐북 활동을 통해 거론된 학회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차마 학회에 가입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 멀리서 계속 응원해 왔고, 이제 학회 회원들이 탐스런 결실을 맺는 모습을 목격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게 된다. 이제 국내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의식 연구를 선도하는 학회로 거듭나기를 학수고대한다.

참고문헌

- Carruthers, P. (2005), *Consciousness: Essays from a Higher-order Perspective*, Oxford: Clarendon Press.
- Chalmers, D. (1995), “Facing up to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2, No.3, 1995, 200-219.
- Chis-Ciure, R. (2025), “Consciousness Science and Constitutive a priori Principles: on the Fundamental Identity of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 *Philosophical Explor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Mind and Action* 28(3), 303-327.
- Cogitate Consortium, Ferrante, O., Gorska-Klimowska, U., Henin, S., Hirschhorn, R., Khalaf, A., Lepauvre, A., Liu, L., Richter, D., Vidal, Y. and Bonacchi, N. (2025), “Adversarial Testing of Global Neuronal Workspace and Integrated Information Theories of Consciousness”, *Nature* 642(8066), 133-142.
- Dennett, D. C. (1992), *Consciousness Explained*, Bay Back Books.
- Lycan, W. G. (1987), *Consciousness*, Cambridge: MIT Press.
- 마이클 프리드만 (2012), 『이성의 역학: 새로운 과학철학을 위한 서설』, 박우석, 이정민 옮김, 서울: 서광사